

서구, “천원국시 하루 1000그릇 나눔 실현”

18일 유덕동에 10호점 개소 매장당 하루 100그릇 판매

광주광역시 서구가 18일 유덕동 칠성로에 ‘천원국시’ 10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하루에 국수 1000그릇을 ‘천원’이라는 착한가격에 판매하는 기존의 천원국시 9개 매장에서 또 하나의 복지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천원국시’는 어르신, 임산부, 취약계층 등에게 우리밀 국수를 1000원에 제공하는 착한도시 서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다.

매장당 하루 100그릇씩 한정 판매하는 ‘천원국시’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리밀 소비 촉진 △생활 속 나눔문화 확산이라는 1석 3조의 가치를 담고 있다.

서구는 2023년 3월 1호점을 시작으로

2년여만에 10호점까지 확대한 데 이어, 지금까지 총 415명의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복지와 고용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10호점은 유덕동의 BI(Brand Identity)인 ‘아이가 미소짓는 마을’에 맞춰 ‘올 키즈존(All Kids Zone)’을 콘셉트로 조성됐다. 18세 이하 아동은 물론, 60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7세 미만 아동과 동반 1인도 국수를 1000원에 제공받을 수 있어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 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이 매장에는 주민과 후원자들이 자발적으로 식자재를 기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나눔냉장고’도 함께 운영된다. 이는 ‘음식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생활형 공유 복지 공간으로서 지역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18일 서구 유덕동에서 열린 ‘천원국시 10호점’에서 참석자들과 시식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이강 서구청장은 “하루 1000그릇 판매되는 천원국시는 단순한 복지 실적이 아니라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작지만 확산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눔과 연대의 상

징”이라며 “천원국시와 함께 다양한 천원 정책을 추진하며 착한복지의 보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북구의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심사 효율성 제고안 마련 당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난 16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심사를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2024회계연도 세입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1조1877억4000만원, 세출액은 전년 대비 4.4% 증가한 1조1143억2300만원,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30% 감소한 395억원이며 잉여금은 전년 대비 28.9% 감소한 734억1700만원, 총부채는 전년 대비 6.6% 증가한 552억원이다.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심사는 재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구민의 세금 사용 내역을 명확히 공개해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세입 대비 세출예산 증가 폭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승인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

‘국정 연계·업무 효율’ 조직 개편 남구, 민주평화인권 전제 대응

광주광역시 남구가 새 정부 정책 기조 연계와 효율적인 업무효율을 위해 조직 개편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남구는 올해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간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컨트를 타워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 총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한반도 평화·인권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대선 공약 및 국정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완성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대선공약과 관련해 기존에 열린 행복과는 민주평화인권과로 개편된다.

남북 교류 활성화와 비상계엄 극복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두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총무과 소속인 남북교류협력팀은 민주평화인권과로 자리를 옮겨 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남구 관계자는 “인력 증원 없이 새 정부 국정 방향과 각종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조직으로 바뀔다”며 “무엇보다도 주민의 삶을 지키는 행정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극장 4K 특별상영회’ 개최 동구, 고향사랑기부금 통해 최신 영사기 교체 기념 행사

광주광역시 동구가 국내 유일의 오래된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의 영사기를 교체해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광주 동구는 광주극장의 노후화된 영사기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최신 4K 디지털 영사기로 교체하고, 이를 기념해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4K 시네마 광주’ 특별상영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은 9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 영화사와 함께해온 유서 깊은 극장으로, 디지털 상영 환경 변화에 따라 영사기 교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인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를 통해 모인 기부금 2억2천만원을 투입해 기존 2K 영사기와 스크린을 최신식 4K 사양으로 교체했다.

이에 따라 관객들에게 보다 향상된 영상 품질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별상영회 기간에는 국내외 고전영화와 SF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상영되고, 광주극장 지정기부자에게는 무료 관람 혜택도 제공된다.

오는 28일에는 이명세 감독의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상영 후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돼 눈길을 끈다.

임택 동구청장은 “광주극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담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영사기 교체를 통해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광주극장이 문화예술 거점으로 다시금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이 지역 문화자원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전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광주극장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극장을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도 이어가고 있다.

정유철 기자



사랑의 과일바구니 광주 북구 신용동 행정복지타운 동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18일 신용동복지타운에서 지역 취약계층 30세대에 전달할 과일바구니를 포장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산구 송정2동, 소매치기 예방 캠페인 시행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2동이 송정2동 통장봉사단, 도산지구대와 함께 소매치기 합동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도 사건을 계기로, 생활 범죄 예방 및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유동 인구가 많은 송정5일장날, 백제약국 사거리에서 송정매일시장상가 일대까지 진행했으며, 소매치기 예방 홍보와 순찰 활동까지 병행했다.

이들은 참여자들에게 가방 안전 소지법·주변 경계 요령 등 실질적인 예방법을 안내하며, 주민들과 소통을 중심으로 예

방 활동을 펼쳤다.

나교석 송정2동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 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더욱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남부경찰, 자연재난 대비 합동 훈련 실시

광주광역시 남부경찰은 18일 남구 노대제 저수지 일원에서 남부소방과 함께 자연재난대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훈련은 태풍 내습 시 강풍, 집중호우로 인한 가옥과 도로 침수 및 다수의 주민들이 고립되는 자연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112신고 접수 후 상황 전파와 재난 현장 인명 구조, 주민 대피, 실종자 수색, 교통 통제 등 수난구조 장비를 점검하고 신

속한 초동 조치를 위한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했다.

또한 소방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 간 신속한 상황 공유와 협력 체계 점검은 물론 추가 피해 예방 조치까지 포함되어 자연재난 상황 실전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득 남부경찰서장은 “자연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